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이효상 의원 외 명

1. 주 문

-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시설설치 사업비와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지원비를 편성하도록 함
- 친환경 대중교통차량 단계적 교체와 친환경자동차 지원금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실행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함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찾아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할 것

2. 제안이유

-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뒤덮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으면서 과거 공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 울산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 울산시는 미세먼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비롯 화학공단의 굴뚝과 중국발 황사 등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을 찾아 근절하는 등 행정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방안대책 마련 긴급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3. 건 의 문 : 따로 붙임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이효상 외 10명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 결의안

매년 4~5월이면 청아한 파란하늘을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뒤덮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구가 시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공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 울산광역시 역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미세먼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비롯 화학공단의 굴뚝과 중국발 황사 등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을 찾아 근절하는 등 행정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용한 암살자라 불리우는 미세먼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듯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미세입자가 몸으로 유입되면 암과

뇌졸중, 치매,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 건강권에 대한 무관심이 차후 막대한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유해물질을 가득 품은 도심 속 매연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현저히 저하되고 하룻밤 사이 차량 위를 뒤덮는 미세먼지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는 세계주요도시 가운데 공기질이 최악 수준이라며 세계3대 대기질 오염 도시로 꼽혔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는 206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약 5만 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아 자칫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나 일반 자살률 보다 훨씬 높게 차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노인계층과 아동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현재 울산은 120만 인구기준으로 0세에서 19세까지 아동인구가 25만6,000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들 아동들이 아토피와 기관지 질환, 천식 등 대표적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경고시에도 다른 지역의 학교는 일괄 휴교를 결정했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교장재량권으로 인해 학교를 등교했던 학생들이 교육당국의 책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태풍의 바람이 최고속일 때 가정으로 귀가조치 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에어컨처럼 공기청정기 및 양무시스템 등 예방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행동지침서 등을 전달해 선제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25만 구민을 대변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긴급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전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어린이집과 유

지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시설설치 사업비와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 지원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해오름동맹권내 친환경 대중교통차량 단계적 교체와 친환경자동차 지원금 확대 등 화학단지 및 공단내에 집진기점검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한 저감 실행대책 발표와 미세먼지예보에 대해 시민 행동대처요령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셋째, 중앙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자체연구팀을 꾸려서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찾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